



## 중국 자동차책임보험시장 개방

이정환 선임연구원

### ■ 중국 정부는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에게 자동차책임보험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함.

- 중국 국무원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12년 5월 1일부터 중국 자동차책임보험시장을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함.
- 자동차책임보험시장 개방은 2006년 자동차책임보험 의무가입 실시 시점부터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2년 2월 14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, 5월 2일 제4차 미·중 전략경제대화<sup>1)</sup>(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)에 앞서 이루어짐.

### ■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책임보험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았음.

- 중국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책임보험 판매를 불허함으로써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를 실질적으로 배제하였음.
  - 소비자가 외국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할 경우 자동차책임보험은 중국계, 종합보험은 외국계에 가입하여야 함.
-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은 753.3억 달러 규모의 중국 손해보험시장의 1%만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1/2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책임보험 판매자격이 있는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와 합작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음.
- 현재 총 21개 외국계 손해보험회사가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Tokyo Marine & Nichido Fire, Chubb, RSA 등이 대표적인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이고 국내 손해보험회사로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진출하였음.

1) 미·중 전략경제대화에는 미국 측 클린턴 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, 중국 측 왕치산 부총리와 다이빙궈 국무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임.

- 전문가들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책임보험시장 진입 허용으로 더 많은 외국계 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함.
-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은 3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1%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에게는 세계 최대 시장임.
  - 2011년 중국 자동차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약 5조 7,000억 엔으로 2010년 일본 자동차책임보험 원수보험료인 7조 8,000억 엔의 73%에 달함.
-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의 진입확대로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대형 손해보험회사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.
  -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중국계 대형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네트워크가 좁고 경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임.
  - PICC, 핑안 등 중국계 대형손해보험회사들은 대규모 모집인과 지역적 연고를 이용하여 중국 손해보험시장 지배하고 있음.

(Reuters, 5/2)